

단편영화 <종을 섬기는 왕> 제작을 통한 인물형상화 방법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Character figuration through the Production of Short Film <King Who Served a Slave>

최민수*

Min-Su, Choi*

청주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 박사과정 (Cheongju Univ.)

국문초록

본 논문은 배우가 극 중에서 인물을 형상화해나가는 과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배우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 오늘날 유명한 영화가 개봉을 하거나, 스타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개봉하는 날이면 극장은 관객들로 가득차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영화와 연극의 전문용어들마저도 대중화 되었으며 배우의 연기를 평가하는 기준과 그 안목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의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는 더 큰 발전을 해 나아갈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회를 지배하는 가늠조차 불가능한 미래에서도 분명 인간만이 가져갈 예술은 연기라고 생각을 한다. 기계 기술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화면에 나타나는 배우, 즉 인간만이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감정들까지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자는 이번에 단편영화 <종을 섬기는 왕>에서 동생 '도진' 역할로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부터 프로덕션(production),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 까지 참여하면서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배우가 어떻게 캐릭터 구축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 촬영에 들어갔을 때 구축된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하게 되는지 점검시켜보았다.

그리고 촬영 후 스스로의 모습을 모니터링 하면서 텍스트속의 인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배우가 연기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 분석한다.

더불어, 단편영화 <종을 섬기는 왕>의 촬영을 통해 다시금 배우에게 있어 캐릭터구축이 연기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며, 영화의 흐름과 정보전달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배우에게 캐릭터구축이 가지는 가치에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둔다.

주 제 어 : 영화, 연기, 배우, 인공지능, 인물형상화

논문정보 : 투고일: 2018. 11. 11 심사일: 2018. 11. 26 수정일: 2018. 12. 03 게재확정일: 2018. 12. 10

* E-mail address: arams9815@naver.com

I. 서론

1.1. 연구 목적

배우란 희곡이나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을 형상화시켜 연기하는 사람이다. 즉, 배우는 평면적이고 추상적인 텍스트 속 인물을 살아 움직이는 인물로 구체화 시켜 재창조해내는 사람으로서 ‘캐릭터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또한 영상은 시각적 미디어를 통해 인간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김경식, 2012). 혼자 연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연출자가 설정해놓은 캐릭터와 내가 구축한 캐릭터가 완벽히 일치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속의 인물을 하나의 캐릭터로 만들기까지는 많은 상상력과 경험이 필요하고 연출자, 상대배우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필요로 한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총감독, 촬영감독, 배우 등 많은 스텝들의 몫이지만, 완성된 영화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만든 영화인들이 아닌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들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하러온 관객들에게 좀 더 양질의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스크린에 비춰지는 배우들의 연기이다. 배우의 연기로부터 관객들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배우의 연기로 인해 관객들은 영화를 외면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배우의 연기력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캐릭터 구축은 배우의 연기력을 결정하는데 있어 큰 요점일 것이다.

이번 졸업단편영화 <중을 섬기는 왕> #5에서 의 지문 ‘도형이 방문을 두드린다.’는 앞선 상황인 신발을 몰래 신고 나간 ‘도진’을 혼내기 위함에 목적을 둔다. 이처럼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행동인지에 따라서 혹은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문을 두드린다.’의 지문 하나가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손 모양으로 두드릴 것인지 결정이 된다. 캐릭터의 이런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모여 관객들은 크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성향의 캐릭터인지 파악하게 된다. 배우가 상황에 따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캐릭터를 구축해야만 명확한 연기를 보여 줄 수 있다. 이러한 연기력은 영화 속에서 뚜렷한 캐릭터로 구현되고 관객들은 이러한 캐릭터가 모인 영화를 보고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살인자 역을 맡아 사회적 윤리와 신념, 가치관과 맞지 않아도 배우가 연기함에 있어 그 캐릭터를 이해하고 캐릭터가 지니는 특수성을 인정하게 되면 배우는 집중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고 좋은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배우가 캐릭터를 얼마나 구체화 시켜 구축하느냐에 따라 캐릭터는 명확한 색을 지니게 되며 살아있는 인물이 된다. 시나리오 속에서는 늘 갈등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시나리오의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캐릭터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캐릭터의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배우는 시나리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캐릭터의 성격을 구축하고 다양한 갈등요소 속에서 캐릭터의 적절한 반응의 정도를 연기로 표현해내야 한다. 캐릭터의 모든 행동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선 배우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고 일관되게 캐릭터를 구축해야 한다. 타당성이 없는 캐릭터는 관객들로 하여금 의문과 모순을 느끼게 하여 영화 속 집중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시켜가며, 배우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캐릭터라도 캐릭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과 애정이 생길 때 비로소 살아있는 캐릭터로 구축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편영화 <종을 섬기는 왕>의 촬영을 통해 다시금 배우에게 있어 캐릭터구축이 연기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며, 영화의 흐름과 정보전달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배우에게 캐릭터구축이 가지는 가치에 목적과 필요성을 둔다.

1.2. 연구 범위 및 방향

이 논문은 캐릭터구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배우가 연기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앞서 제1절에서 이 연구에 대한 목적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영화에서 배우의 연기력은 매우 중요하다. 관객들은 카메라에 찍힌 사실성을 지닌 스토리를 프레임을 통해 마치 훑쳐보는 것과 같이 영화를 접한다. 배우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에 나오는 인물을 실제인물처럼 믿게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영화에서의 연기는 현실과의 차이성이 없어야 한다(김연주, 2013). 그 연기력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물 형상화라는 것에 본 연구자는 중점을 둔다. 그러나 텍스트 속의 평면적인 캐릭터를 입체적인 살아 움직이는 인물로 구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심오한 일이며 그 방법에 있어서 또한 옳고 그름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연기에 대해 본 연구자가 알고 들어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불확실하다.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나 기존에 연구 자료를 통해 참고 인용하였다. 시나리오 속 캐릭터 구축하는 방법을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캐릭터 구축 5단계>

첫 번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시나리오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분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주는 기본정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배우의 경험과 상상력을 입혀 갔다.

세 번째. 캐릭터만의 개성과 특징을 설정하여 배우를 인물 형상화하는 작업을 했다.

네 번째. 설정한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다섯 번째. 연출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캐릭터를 조율했다.

위 방법들로 단편영화 <종을 섬기는 왕> 도진 역을 연기함에 있어 직접 연구자에게 적용해 보았다.

II. 본론

2.1. 작품주제와 기획의도

1) 작품주제

영화전체의 흐름은 결국엔 관객들에게 주제를 던져주기 위함이다. 관객들은 주제가 없거나, 주제가 완벽히 전달되지 못한 영화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결국엔 관객들로 하여금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하고 결국은 서서히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다.

단편영화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주제를 관객들에게 완벽히 전달해야만하기에 영화를 준비하는 전반적인 단계에서부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철저히 생각하고 계산해 두어야한다.

영화관에서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질 때 관객들의 웅성대는 소리와 한숨을 누구나 꺾어 본적이 있고, 본인 또한 그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영화의 열린 결말로 인한 궁금증이거나 여운 일수도 있고,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관람한 영화가 지불한 대가만큼 값어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준비기간 부터 후반작업 기간까지 수개월을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 찬사는 받지 못할지언정 불쾌한 반응을 얻는다면, 영화제작에 참여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수개월을 고생한 많은 관계자들은 상심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작품의 주제가 단단하게 설정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옥한 토지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나듯 영화가 관

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올바르게 확립이 되어있어야 관객들도 영화를 한번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출자의 세계로 들어와 영화가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깊게 생각할 수 있다.

단편영화 <중을 섬기는 왕> 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모텔에서 알바 하는 형 ‘도형’과 형에게는 항상 ‘찐따’ 인 고등학생인 동생 ‘도진’ 의 성장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가장 가까울 수 있으면서도 알고 보면 가장 멀게 느껴지는 형제의 모습에서 가족 간에 소통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2) 기획의도

현재 한국에서 찐따와 일진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다. 본 연구자와 감독은 처음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인물들을 만들어 나갈 때 누구나 접해 봤을 사회적 이슈로 인간의 이중적인 이분법적 모습을 다루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만 아니라 사회로 옮겨가서 학생이 아닌 성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확장되었을 때의 모습을 다뤄보고자 하였다. 학교폭력과 일반 성인의 합점을 형제로 두고 동생의 학교폭력 문제에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학교폭력이 단순 학교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문제를 자연스레 다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뉴스나 SNS에서 많이 다뤄지는 사내폭력, 갑질, 개방되어있는 장소에서의 상식 밖의 이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거나 폭력을 받는 상황을 직면해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유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또는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찌지’ 등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자신에게 관대한 합리화를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고 삭막한 현실에서 이 영화를 보고 무언가 느끼는 점이 있었으면 한다.

어느새 성인의 문턱에 다다르게 된 형제가 서로를 온전하게 인식하게 되는 성장지점을 표현한다. 극중 형, 도형은 ‘일진’ 혹은 ‘찐따’라는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동생을 ‘찐따’라고 판단하지만 동생은 오히려 형이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련의 사건을 따라가는 형의 시선을 통해 형이라는 위치에서 흔히 가지게 되는 우월의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그린다.

2.2. 시놉시스와 콘티, 일일촬영계획표

1) 시놉시스(synopsis)

도형이 일하는 여관 뒤편. 불량한 고등학생들이 몰려와 담배를 피운다. 이를 묵인해주는 도형에게 고등학생들은 적반하장으로 담배를 사달라고 한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센 척을 하던 도형이 우연히 동생이야기를 꺼내고, 학생들은 담배만 사주면 동생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남긴 채 사라진다.

쫄쫄한 기분으로 집에 온 도형은 동생, 도진이 자신이 아끼던 신발을 신고나간 것을 발견한다. 도형은 도진이 혹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나 싶어 도진의 뒤를 밟는데, 도진을 따라 도착한 굴다리엔 아이들이 모여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다. 영환이라는 친구가 소위 일진무리에게 당하자 도진과 아이들은 일진 소탕을 계획했던 것.

한편, 뒤늦게 굴다리를 찾아온 성구는 도진과 아이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주도로 일진들에게 복수를 하자고 제안한다. 성구가 도진과 충돌하자 도형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주려 하지만 끝내 성구와 시비가 붙는다. 얼떨결에 성구를 때려눕히게 된 도형은 성구가 숨을 쉬지 않자 굴다리 안에 사고를 위장하려 한다. 도진은 형에게 반대하여 성구를 응급처치하고 성구의 의식을 되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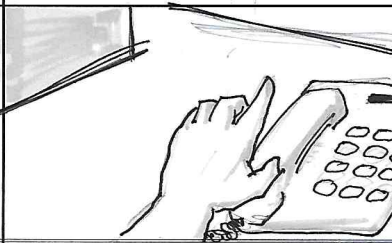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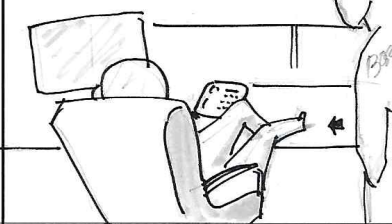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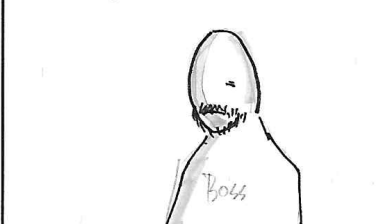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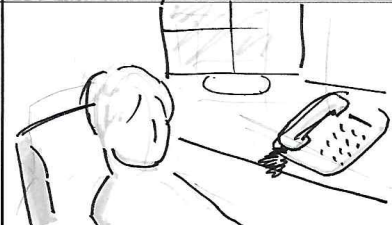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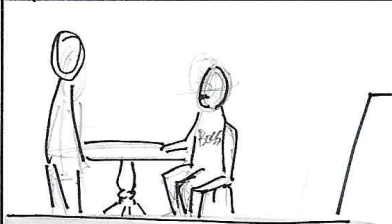
깨어난 성구에게 도진은 입막음을 시도하지만 도형의 이분법적인 관점과 오지랴이 다시 이를 방해한다.

도형의 일터에 고등학생들이 다시 찾아온다. 이번엔 무리에 성구가 끼어 있다. 아이들은 성구의 이야기를 토대로 도형을 린치 한다. 얻어맞고 집으로 돌아온 도형은 도진이 신고 나가던 신발을 쓰레기장에 버린다.

2) 콘티, 일일촬영계획표

Title. S#1 여관카운터 / N

Page. 1

Cut	Picture	Action	Dialogue	time
1		TOP ~ : cctv모니터 END : 전화기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는 도형	
2		뒷각 F.S 사장님 화면 오른쪽에서 F.I	사장님이 들어오면 도형 팬스레 부산스러워진다.	도형 : 00파크입니다.
3				사장 : 누워있어. 손님도 별로없는데 ~ 아예 무인텔로 바꿀까?
4			CCTV 모니터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얼쩡댄다.	도형 : 오늘 쓰레기 나가는 날 인데...
5			사장 튀어 나가려 하는데 도형이 말린다.	사장 저거 뒤에 저놈들은 뭐야 자꾸? 놀이터야?

<그림 1. 콘티>

		세 퍼 드 시네 마		스텝 콜시간 @07:00				날짜		2018.07.12 (목)			
		감독 임진현						회차		1	총 회차	4	
		프로듀서 한동현		슛 @ 08:00						일출 / 일몰		05:20 / 19:50	
날짜										일출 / 일몰		05:20 / 19:50	
로케이션		행신동 785 소만마을 6단지 607동											
그날의 한마디													
TIME TABLE													
시간	S#	대장소	소장소	촬영장소	Cut Set-up	L O S	D/N	구분/ 날짜	내용		조.단역		
8:00		현장 집합 및 촬영세팅											
9:00		촬영시작											
	#4	아파트	관란	행신동 소만마을6단지			D	2	도형은 진흙투성이인 운동화를 발견한다.				
	#5	아파트	관란	행신동 소만마을6단지			D	2	도진의말문을 읽고 신발들 던지는 도형				
13:00		중식											
	#6	아파트	관란	행신동 소만마을6단지	6		D	2	도진의말문에서 도진과 싸우는 도형 인기척이느껴지지않자 흉물부딪치며 흔들거리고한다				
	#7	아파트	복도	행신동 소만마을6단지	5		D	2	현관으로 나가는데도형 도진이 장 밖으로 도망간 것을 발견한 도형후 도형을 퇴짜시킨다.				
16:30		석식및#24이동											
18:00		#24세팅											
18:30	#22	아파트	쓰레기장	행신동 소만마을6단지	3		N	3	아파트 쓰레기장에 운동화를 버리는 도형.				
21:00		촬영종료 및 현장정리											
배우 클타임													
배역	배우	클타임	세팅완료	의상,분장 장소	의상	분장							
도형	박해리	07:00	07:30		의상2	#22 영분장							
도진	최민수	07:00	07:30		교복								
1 페이지													
보조출연 & 이미지													
S#	콜 시간	리허설 시간	보조출연 내용				보조출연 숫자	비고					
팀별 주요 내용													
연출				미술 소품	더러워진립신발, 도진것은신발				음식 동물				
제작				CG	#22-#23-#24 도형상적분장				액션				
장비				특요					총기				
NEXT	집합장소			날짜	2018.07.13(금)				로케이션			원미동 73-7	
	예상 집합 시간	7:00		날씨									
	촬영 시작	8:00		일출 / 일몰	05:20/19:55								
	S#	대장소	소장소	촬영장소	Cut Set-up	L O S	시제	구분/ 날짜	내용		도형 인	셋 수	조.단역
16-19	여관	여관내부	부천시 오이재동 38897길 24			D		여관용다주				여관사장	
소스	여관	여관내부,뒤편	부천시 오이재동 38897길 24			D		CCTV소스촬영				학생1,2,3,4	
1	여관	카운터	부천시 오이재동 38897길 24			D		여관 카운터에서 누워있던 도형은, 황물색 CCTV 모니터를 본 사정임과 도형 도형은 여관 직원으로 나간다				여관사장	
20	여관	뒤편	부천시 오이재동 38897길 24			D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왔다가 학생2를 발견한 도형. 다급히 밖으로 끌고 나간다				학생2	
21	여관	뒤편	부천시 오이재동 38897길 24			D		상구가 끌고 온 일진 무리와 싸우게 되는 도형.				학생1,2,3,4 / 골목길일진1,2.	
2	여관	뒤편	부천시 오이재동 38897길 24			N		학생들을 혼내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도형,담배 필 곳을 제공한다.				학생1,2,3,4	
3	여관	뒤편	부천시 오이재동 38897길 24			N		여관뒤편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형 학생1이 담배를 시달리고 부딪힌다				학생1,2,3,4	
소스	여관	뒤편	부천시 오이재동 38897길 24			N		CCTV 소스촬영				학생1,2,3,4	
주요 연락처	연출	조감독 최진혁 010-9509-7782 / 스크립터 미술 손수정 010-5525-2643 / 의상 분장 조윤식 010-7299-4178											
연락처	제작	1st 정가영 010-8030-2547 / 2nd 홍성호 010-3186-7452 / 3rd 최한규 010-3150-0779											

<그림 2. 일일촬영계획표>

2.3. 캐릭터 분석과 인물 형상화

1) 캐릭터 분석

도형의 동생. 형의 생각과는 다르게 ‘찐따’가 아닌 정의로운 인물. 절친한 친구인 ‘영환’을 병원신세 지도록 만든 ‘일진’ 무리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풍족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맞벌이를 하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형과 둘이서 지내왔다. 하지만 중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형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3살 터울의 형과는 같은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기에 잘은 모르지만 반항기 있어 보이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 그와 반대로 도진은 친구를 가려사귀지 않았기에 주위엔 평범한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도 두루두루 사귀었다. 그렇기에 일진 혹은 찐따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한 형의 눈에 비춰진 동생 도진의 모습은 ‘일진’이 아니기에 그저 ‘찐따’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는 도진이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대단하다고 분석된다.

극중 직접적으로 등장 하지는 않지만 ‘영환’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영환’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일진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병원신세를 지게 되자 도진은 지금까지 일진들에게 억압받아온 학교 안의 약자들을 모아서 영환의 복수하기 위해 매일 밤마다 굴다리에서 모여 태권도 연습을 한다. 그 와중 불미스러운 사고로 자신들을 괴롭히던 ‘성구’가 형에게 맞아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그냥 두고 가자는 형과, 도망가는 다른 친구들과와는 다르게 자신들을 괴롭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과정이 어찌되었던 도진의 선하고 정의로운 면모를 알 수가 있다.

도형과 도진의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형이 동생에게 물을 떠오라거나 잠자기 전에 불을 꺼달라고 동생을 부르는 모습처럼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시나리오에서 집안에서의 도형 도진의 관계, 굴다리에서의 도형과 도진의 관계를 보면 집 안에서는 위치나 힘 모두 동생인 도진이 도형에게 압도를 당하지만, 굴다리 안에서는 도형이 별려놓은 일을 동생인 도진이 모두 수습하고 마지막으로 형에게 빼있는 말을 남기는 장면을 보면 제복처럼 중(도진)의 위치와 왕(도형)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임을 알 수 있다.

배우는 실제로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정서를 행위로써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신동선, 2014).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등학생인 ‘도진’이라는 캐릭터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의 정서적 기억을 토대로 본인의 학창시절을 회상하고 주위에 형제를 둔 친구들에게 조연을 들어보고, 실제로 두 살 터울의 동생이 있기에 본 연구자와 동

생의 모습은 어땠는지 다시 되짚어 생각해보며 시나리오의 기본정보를 조금씩 확장해나가서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촬영에 임할 때에는 형상화한 캐릭터에 최대한 몰입해서 오직 ‘도진’의 입장에서만 정서를 느끼고 연기할 수 있도록 집중해 보았다.

2) 인물형상화

과거 초창기의 영화들과 달리 영화제작에 소리, 즉 대사, 음악, 음향이 도입되면서 영화의 소프트웨어가 크게 바뀌게 된다. 특히 대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영화제작에서의 시나리오 작업 비중도 점차 커지게 되었다(어일선, 2010).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또한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안에는 극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가지는 뜨거운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 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에 상반되는 캐릭터와의 마찰과 갈등이 있어야 한다. 배우는 시나리오의 새로운 인물을 연습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 구축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희로애락을 맛보게 된다. 그렇기에 연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이자 배우를 평가하는 가장 큰 척도나 다름없다(정민영, 2018).

배우는 대본 속 텍스트의 전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작가가 의도하는 언어의 전달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동현, 2013). 먼저 배우는 시나리오를 받으면 먼저 작가의 작중 의도를 파악한다. 그 후 시나리오 안의 텍스트가 주는 기본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본인의 비슷한 경험이나 상상력을 동원하여 캐릭터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의 기본정보는 시대 배경, 인물, 시간 등을 말한다. 기본정보를 파악한 뒤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분석 할 줄 알아야 한다.

시나리오 안의 글을 배우가 행동으로 옮김에 있어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때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볼 때 전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토대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섬세한 부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야만 관객들이 느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는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섬세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우리는 캐릭터의 심층부분 까지 들어가야만 한다.

배우는 자신이 작품속의 상황에 놓였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상상하고, 자신의 유사한 경험이나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 인물이 되어야 한다. 연기는 단순히 무대 위나 카메라 앞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배역과 동화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석훈, 2008).

본 연구자는 단편영화 <종을 섬기는 왕>에서 위로 성인의 형을 둔 고등학생 역할인 ‘도진’을 맡아 연기하였다. 본 연구자 역시 시나리오 안에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얻어 1차적으로 ‘도

진'이라는 고등학생 캐릭터를 상상해 보았으며, 고등학생이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고 <종을 섬기는 왕>의 시나리오안의 형제와 비슷했던 주위의 인물을 찾기 시작하였고 두 살 터울의 동생을 둔 본인의 과거 역시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보았다. 영화가 최종적으로 관객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물이 가진 풍부한 내면세계를 탐구하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다(리웨이칭, 2018).

그렇게 '도진'이라는 고등학생 캐릭터는 과연 어떤 말투에 어떤 성격일지 상상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점차 본인 자신을 '도진'화 시켜갔다. 이렇게 배우를 캐릭터화해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나리오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배우의 풍부한 경험과 끊임없는 상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Ⅲ. 결론

본 연구자는 배우가 연기함에 있어 시나리오 내 인물을 영상 안에 인물로 형상화 시키는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좀 더 나은 인물형상화를 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위해 직접 형제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영화 <종을 섬기는 왕> 중 동생역할인 '도진'을 연기하였다. 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를 분석 하며 작품의 주제와 기획의도를 파악하고, 연출과 상대배우와의 의견 조율, 주변 지인들의 경험을 참고, 나 자신의 형제관계, 과거의 정서적 기억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하며 인물을 점차 형상화 해 나갔다. 촬영 후 어떠한 점이 본 연구자가 의도했던 것처럼 표현이 되었고 어떠한 점이 변화되었는지 연구해 보았다.

그 결과, 의도했던 대로 나왔던 장면이 있는 반면 촬영장의 유동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다르게 표현된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장면도 있었다.

단편영화의 제작 과정 전 단계를 거치면서 촬영 전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배우의 상상력에서 캐릭터가 살아온 과거환경과 개성을 얼마나 섬세하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촬영 후에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나은 영상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급속도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영상관련 쪽에서도 어떠한 신기술이 등장하고 기존의 기술들이 발전할지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된 현 시대에서의 영상연기나 무대연기,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미래시대에서의 영상연기와 무대연기에서도 결국 연기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발전하는 시대에 맞추어 배우는 변화하는 시대에 눈높이를 맞추어 평면적인 텍스트의 캐릭터를 살아있는 인물로 형상

회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시대와 함께 진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논문

- 김경식(2012).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선교의식변화와 동원전략 방안 -필리핀 바세코 지역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 김연주(2013). **영화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연기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 신동선(2014). **배우의 정서 발현 및 조절을 위한 신체적 접근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 어일선(2010). **일제강점기 영화광고에 나타난 개봉 영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0.
- 정민영(2018). **영화 연기 테크닉의 특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
- 이동현(2013). **이미지 구축과 행동계획을 활용한 연기교육 방안 : 미카엘 체흠의 연기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 김석훈(2008). **공연과 영상 매체를 통한 배우의 이미지창조에 관한 분석 : 최민식, 설경구, 김석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 리웨이청(2018). **단편영화 <舞>의 제작 연구 -편집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6.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Character figuration through the Production of Short Film <King Who Served a Slave>

Choi, Min-Su*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what direction of the process in which the actor formalizes the character in a performance will help the actor. As the economy develops, the public are engaged more in cultural activities. When famous Hollywood films open or films starring celebrity actors are released, the theaters are filled with audience members. With this trend, the professional jargons in film and theater have become popularized, with the public more capable of evaluating acting and judging the performance.

From black-and-white silent films to glamorous 3D films in the modern era in the mids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ilm technology has advanced greatly, with more developments to come in the future. Even in the possible futur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rules our societies, the author believes that acting is the only form of art that humans are certain to dominate. While technical and mechanical parts can be replac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s, but the actor on the screen, that is, the emotions inherent to humans, will be extremely difficul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place. When film technology advances even further in the future, the audience's requirement and standards for the performance of the actors will be on a much higher level than it is today.

Formalizing figures in texts of scenarios, that is, to establish a character, is the process of an actor giving an identity to a flat text character, in addition to breathing in a personality and life. It is the most basic stage of acting, but also the most profound one at the same time.

With this in mind, the author of the current study participated in the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stages of the making of the film "A King Serving the Servant" as the character "Do-jin." In doing so the author applied knowledge on how the actor establishes a character in a scenario, and how he or she plays the established character in front of the camera.

In addition, the author studies and analyzes what methods of formalizing characters in the text are more helpful to the performance of actors, by monitoring the his or her own performance after the scenes were filmed.

Key words: Actor, Act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s, Short film, Scenario, Filming

* Postgraduate Ph.D. School of Film Art, Cheongju University (arams9815@naver.com)